

# 곡성군, '일자리 기본계획 수립' 중간보고회 개최

### 곡성 일자리 포럼 통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 의견 청취

### "일자리 지향점·방향점 모색해 내실 있는 연구용역 추진"

곡성군이 지난 11일 군청 대동마루에서 '곡성군 일자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작년에 시행된 '곡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됐다. 보고회의 주된 목표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맞춤형 일자리 모델을 찾고, 그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용역업체는 그동안 단계별로 진행된 연구 추진 경과를 보고했다. 지난 3월부터 실무위원회(TF)를 구성해 연구 방향을 설정했고, 5월에는 타 지자체를 방문해 일자리 관련 실무자 인터뷰를 진행했다.

또한 6월 착수보고회를 기점으로 현재까지 곡성군 내 여러 부서의 일자리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주요 주제들과 심층면접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곡성 일자리 정책 포럼을 통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곡성군의 일자리 기본계획 최종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보고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군의 일자리 현황에 대한 집중 비교·분석을 통해 미래 곡성군 일자리의 지향점과 방향성을 모색해 내실 있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최종보고회까지 선도적인 모



델을 제시할 수 있게 관련 부서와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드린다. 제시된 의견의 보완·반영으로 사업별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해 지역 경

제발전을 견인할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곡성=양해영 기자



## '치매 사각지대 해소' 나주시 3개년 치매전수조사 순항

나주시가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주민의 선제적인 치매 예방을 위한 치매전수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2일 나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따르면 "나주형 치매조기검진" 3개년 계획에 따라 올해 4월부터 6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치매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전수조사는 지난 코로나19 장기화로 공백이었던 치매 검진 사업을 재정비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 어르신 환자를 발굴, 환자와 가족을 위한 맞춤형 치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나주시 인구 통계에 따르면 관내 60세 이상 인구는 올해 8월말 기준 3만7883명으로 전체 인구의 32.3%를 차지한다.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가운대 통계청 추계로 2030년에는 4만4212명, 2040년에는 전체 인구의 46%인 5만4926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치매 환자도 증가세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919명이었던 치매 환자 수는 2022년 3667명으로 3년간 1.9배가 증가했다.

이에 나주시는 3개년 계획에 따라 60세 이상 시민 3만72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치매조기검진을 추진 중이다.

올해 목표는 1만2000명으로 9월 현재까지 7874명에 대한 검진이 이뤄졌다.

검진 대상자는 치매안심센터 및 보건지소·진료소에 직접 방문하면 무료로 검진을 받아볼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마을 경로당, 가구 방문을 통해 찾아가는 검진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526명의 치매 환자를, 치매 가능성이 있는 인지저하·경도인지장애 대상자 508명을 각각 발굴했다.

검진 대상자의 경우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ANSYS)에 등록·관리되며 치매 검사비, 치매치료관리비, 치매환자 조호물품,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원활한 전수조사 사업 추진을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현수막 게시, 전광판 게시, 마을 안내방송, 우편·문자 발송 등을 통해 치매검진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나주=송준표 기자

## 화순군, 농산물 가공 기초반

### 29일까지 선착순 20명 모집

화순군은 농산물 가공에 대한 전문지식 함양과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2023년 농산물 가공 기초반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농산물 가공사업 전반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농산물 가공 창업의 시장 전망부터 가공 방법 및 신제품 개발, 사업계획서 작성 등 총 4회에 걸쳐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매주 화요일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의 수료자는 차기 개설될 가공 심화 교육 과정 우선 참여 자격이 부여된다.

신청 대상은 화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농산물 가공과 창업에 관심이 있는 농업인으로 선착순 20명이다.

화순=박순철 기자

## 담양군, 추석 연휴 군립

### 묘원 종합대책 추진한다

담양군은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3일) 방문객의 편안한 성묘를 위해 군립 묘원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군은 추석 연휴 일시에 많은 방문객 집중이 예상됨에 따라 추석 연휴 전·후 이용, 추석 당일 차량 출입제한(오전·오후),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연휴 기간 묘원 시설물 현장관리 및 방문객들의 안전한 성묘를 위해 '종합대책반'을 편성하고, 사설 보안시설 방문객 안전대책 사전점검과 풀베기 등 주변 환경을 정비해 방문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담양=박종영 기자

## '휴식·치유' 장성 축령산 편백산소축제 16일 팡파르

### '행복의 온도, 쉼' 주제...편백 체험 등 다채롭게 구성



탐방객들이 전국 최대 규모의 편백림이 조성된 '장성 축령산'에서 숲속 요가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장성군 제공)

심신의 건강을 지키고 스트레스까지 줄여주는 치유의 행사가 장성에서 열린다.

장성군은 오는 16일 축령산 일원에서 편백산소축제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축령산 편백산소축제는 국내 최대 규모 인공조림지로 알려진 축령산 편백숲에서 펼쳐지는 자연 친화적 '웰니스' 축제다.

웰니스는 정신과 육체가 편안한 상태를

뜻하는 웰빙과 해피니스(행복), 피트니스(건강)의 합성어다.

올해 주제는 '행복의 온도, 쉼'이다. 깨끗한 공기와 풍부한 피톤치드를 지닌 편백숲에서 걷고, 쉬고, 체험하며 행복에 가까워져가는 시간을 갖는다.

축제는 축령산 모암주차장(모암리 569-5)에서부터 시작된다. 오전 10시 주차장 인

근 주무대에서 요들송 공연이 펼쳐지며 숲속의 아침을 깨운다.

모암저수지 테크길을 따라 30~40분 정도 산책길을 즐기며 걸으면 금빛휴양타운 앞 공터에 마련된 축제장까지 금새 도착한다.

어린이, 노약자 등 오래 걷기 힘든 체험객들은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숲 체험 존에선 '행복 온도 테라피', '신체 온도 테라피', '힐링 온도 테라피', '쉼의 온도 테라피', '숲의 온도 테라피' 등 총 다섯 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또 '도닥도닥 마음 안식처, 숲명 에이에스엠알(ASMR) 존'에선 숲속에 앉아 온전히 나무와 하늘을 만끽할 수 있어서 지친 심신을 충전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좀 더 활동적인 체험을 원한다면 체험 존에 이어 숲치유센터, 임종국수목장까지 다녀오는 '스탬프 투어'에 참여하면 된다.

이 체험은 지정된 장소마다 도장(스탬프)을 받은 뒤 제출하면 스탬프 개수에 따라 선착순으로 선물도 제공한다. 숲해설사가 들려주는 재미있는 숲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다.

축제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장성군청 문화관광과 관광마케팅팀(061-390-7252)으로 하면 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치유관광 명소로 유명한 축령산 편백숲에서 가족, 지인과 함께 행복한 추억, 자연과 하나 되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 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수권 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 SPS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엔텍

포스코건설  
포스코O&M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티미날

포스코ICT  
포스코A&C

포스코광판